



“ 2002년 12월 19일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면,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박수치고 사람들이
 함께 춤출 것입니다. ”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상임고문실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5 금강빌딩 3F
 전 화 : 02) 3775-1663
 홈페이지 : www.knowhow.or.kr

분열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통합의 새시대를 열어가자!

노무현과 함께 하는 사람들
 2001 무주단합대회 연설전문



분열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통합의 새시대를 열어가자!

노무현과 함께 하는 사람들
2001 무주단합대회 연설전문

2001년 11월 10일

지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전북 무주리조트에서는 3천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무현과 함께 하는 사람들 · 2001 무주단합대회”가 열렸습니다.

행사가 열린 첫날, 무주리조트 내 티롤호텔 대연회장에서는 배우 명계남씨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노무현 상임고문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고문은 이 특강을 통해 2002 대선 승리를 위한 우리 당의 역할과 자신의 비전을 역설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대의원들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킨 명연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이날의 연설 전문을 자료집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의 미래를 열기 위해 진력하고 있는 노무현 상임고문에게 힘찬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상임고문실



“분열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통합의 새시대를 열어가자!”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모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아닙니다. 편합니다)
예,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비록 자리가 불편하지만 편하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되도록 확실한 노무현 지지자만 모시고 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 지지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청중 : (아닙니다, 노무현! 노무현!...)

저를 지지하는 분들만 오셨다면 자리가 이렇게 비좁지는 않을텐데... 만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라면 전당대회가 필요 없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박수, 함성) 이게 헛갈립니다. 하여튼 불편하시더라도 이 자리의 열기로 기쁘게 참아주시고요, 그리고 설령 지금까지 저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마음을 결정하시고요, 돌아가신 후에 저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밉더라도 경청해 주십시오.(박수)

찬바람이 몰아치는 길거리에서, 부천역전에서, 천안역전에서, 부산역전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추위에 떨면서 함께 뭉쳤습니다

❖ 우리는 동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동지입니다. 유신시대를 살아오셨죠? 5공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직접 반독재투쟁의 전선에서 많은 분들이 싸우셨습니다.

독재와 특권에 맞서서 나라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끌려가서 매맞고 감옥 가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간 자식들을 돌려달라고 민가협을 결성해서 함께 나섰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 중에서도 그 시절 그가 열찬 투쟁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유신시대 민주화운동에 나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87년 6월 항쟁 때 여러분들은 최루탄을 마셨을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직선쟁취', '민주헌법쟁취'를 외치면서 많은 분들이 싸웠습니다. 차마 용기가 없어 길거리에 함께 뛰어들지 못했다 할지라도 길거리에서 뛰는 젊은이들에게 김밥을 가져다주고, 물수건도 가져다 주고 마스크를 사다주며 마음을 보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동지들입니다. 민주주의의 동지들입니다.

'92년 쇠점터, 그 자리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12월, 우리는 그 찬바람이 몰아치는 길거리에서, 부천역전에서, 천안역전에서, 부산역전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추위에 떨면서 함께 뭉쳤습니다. 그러나 패배했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
우리가 만듭시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또 그렇게 싸웠습니다. 마침내 정권이 교체
되었습니다. 50년만의 정권교체라고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권력에 맞서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 권력을 쟁취한, 600년만의 쾌거였습
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
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동지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굴종과 기회주의의 부끄러
운 역사를 청산하고 이제 당당하게 우리의 손으로 정권을 세운 이 민주주의의
역사를,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박수)

습니다. 이는 성공할 것입니다. 정보

입니다. 이는 성공할 것입니다. 정보

❖ 20년 후 역사의 법정에서 새로운 평가를 할 것

오늘 우리는 다시 민심의 법정에서 피고로서 있습니다. 민심은 당을 떠났습니
다. 민심은 대통령을 떠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의 보궐선거에서 우리는 실패
했습니다. 당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가집시다. 민심의 바다에 거친 파도가 있다면, 민심의
바다에 역사의 조류도 있을 것입니다. 민심의 파도는 김대중 대통령을 때리고
민주당을 흔들지만 역사의 조류는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사가 과거로 되돌아 갈 것입니다

역사적 정권교체

20년 후 우리는 역사의 법정을 다시 열 것입니다. 그 역사의 법정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정권교체는 한국역사를 바꾼 빛나는 기록으로 판정받을 것입니다.

6·15정상회담

남북회담은 우리와 자손들의 삶을 바꾼, 우리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이루어낸 역사적 사건으로 다시 평가받을 것입니다.

외환위기 극복

우리는 IMF를 극복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110개 나라가 IMF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아직도 IMF관리를 받고있는 나라가 50개국에 넘습니다. 딱 한번 돈 빌려서 한 번만에 갚아버린 나라는 전 세계에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와 한국입니다. 기한 전에 다 갚아버린 나라는 오로지 한국 하나뿐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새로운 기록을, 세계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역량이,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단결이 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일부 특정 소수 언론이 우리 정부의 공은 십분의 일로 깎아내리고
잘못은 열 배로 부풀리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성공할 것입니다. 정보화도 성공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가 '국민의 정부' 시절에 놓여질 것입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역사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국민의 정부' 시절에 심어놓은 그 싹이 정말 끈고 튼튼하게 자라났다고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신을 가지십시오.(박수)



❖ 민주당이 재집권하지 않으면 역사는 과거로 되돌아갈 것

우리는 다시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사가 과거로 되돌아 갈 것입니다.

❖ 민심의 법정에서 거대한 역류가 이는 것은 수구세력의 거짓수수 때문

지금 과거 군사독재 하에서 국민들에게 온갖 박해를 가하면서 특혜를 누렸던 수구 기득권 세력이 국민의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일부 특정 소수 언론이 우리 정부의 공은 십분의 일로 깎아내리고 잘못은 열 배로 부풀리고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사가 과거로 되돌아 갈 것입니다.

있습니다.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감히 국회에서 발설하고, 일부 언론은 이 유언비어를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실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법정 에 왜 이처럼 거대한 역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구세력의 거짓술수 때문입 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 정부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 군사정권이 걸었던 잘못된 길을 답습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정권 에는 것처럼 관대했던 언론이 왜 우리 국민의 정부는 이처럼 가혹하게 흔들어 대는 것입니까? 과거 그 언론들은 정권의 지시에 따라 기사를 썼던 사람들입니 다. 그래서 특권을 누렸습니다. 문민정부가 되니 그들이 먼저 언론자유를 내세 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좀 더 민주화 된 사회에서 그들은 언론자유를 주장하면서, 그들이 탄생을 바라지 않았던 국 민의 정부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 국민의 정부가 가는 길은 역사의 길, 민족이 사는 길

지금 국민의 정부가 가는 길은 역사의 길입니다.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이 길 을 그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좌절한다면 역사는 다시 거꾸로 가고 말것입니다.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승리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해놓은 이 역사적 과업을 성공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일부 특정 소수 언론이 우리 정부의 공은 십분의 일로 깎아내리고
한일세력이 나라 잘못은 열 배로 부풀리고 있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정권교체로 출발한 민주주의, 그리고 개혁, 보다 민주화된 사회, 보다 깨끗한 사회, 보다 투명한 사회, 더 잘 사는 사회, 그러면서 골고루 잘 사는 공정한 사회 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박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화해를 성공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그 평화를 기초로 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질서를 만들어내고, 1억의 내수시장과 7억의 국제시장을 만 들어내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완성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질 서 위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한국을 만들기 위 해서 우리는 남북 화해와 협력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내야 합니다. (박수)

보다 튼튼한 경제를 위해

IMF는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경제가 불안합니다. 언제 다시 위기 가 올지 모릅니다. 허리띠 단단히 동여매고 새로운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IMF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한국경제의 체질이 잘못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다 시 환란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 체

다시... 1987년 6월 29일... 15위 10월... 수조... 부...
다... 15... 10... 15... 10... 15... 10...



질개선을 위해서는 어려움을 참고 온 국민
이 뚝뚝 뭉쳐서 구조조정에 성공해야 합니
다. 그래서 경제를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튼튼한 기반 위에 올려놓고
세계 속의 일류경제가 될 수 있도록 경쟁
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 없이는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이 또 다시 재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재벌개혁을 뒤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
다. 막아야 합니다. 막지 못하면 역사는 거꾸로 가게 됩니다. 막지 못하면 이 사
회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사회가 되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설 땅이 없게 되는 것
입니다.

▶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위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
졌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분
열시키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산적 복지' 정책은 바로 이 시장경제
로 말미암아 생기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열과 갈등을 하나로 통합하기

해방 후 남북 분단과 좌우의 대립이라는 분열로, 친일세력이 나라의 주도권을 잡고 역사를 왜곡시켜

위한 사회통합의 정책입니다. 이 '생산적 복지'가 실패한다면 한국은 또 다시
분열해서 싸우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남북화해, 경제건설, 그리고 이 '생산적 복지정책'은 반드시 성공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정권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
해야 합니다. (박수)

❖ 분열이 망친, 나라의 역사

해방이 되자 온 민족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우리는 자주독립국가
의 건설에 실패했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일도 실패했습니다. 경제건설도
더디었습니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역사는 왜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는커녕 친일파가 다시 득세했습니다. 왜
이렇게 친일파가 득세하게 된 것입니까? 나라가 남북으로 동강나고 남한에서
는 좌익과 우익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민주주의보다 반공이 더 중요한
국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반공을 내세워 친일세력들이 이 나라의 주도권을 잡고
우리의 역사를 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민주화투쟁을 하면서 1987년 6월 29일,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민주세력들이 이 나라의 정치를 주도해 나

토론회 2001 무주단합대회 연설
서로 갈라져서 반목하고 불신하고 싸웠던 나라치고
후손들에게 엄청난 불행을 남겨주지 않았던 역사는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민주세력이 순조롭게 개혁을 완수하고, 민주주의를 완수하고, 우리 경제를 이제 전 국민이 함께 골고루 잘 사는 튼튼한 경제로 만들어 나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구세력들이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다시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큰 힘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고 있습니다.

분열 때문입니다. 분열 때문에 3당합당이라는 일이 일어났고 3당 합당 때문에 정치구도는 이념과 역사를 떠나서 오로지 지역에만 의해서 투표하는 지역구도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 지역구도 속에서 옳고 그름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정책의 효율성과 정당성이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까? 오로지 지역만이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정책도 지역에 따라 지지를 달리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수구세력들이 국민의 정부를 혼드는데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역감정입니다. 그 지역감정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수구언론들이 장악할 수 있었겠습니까?(박수)

세계 어느 나라 중에서도 서로 갈라져서 반목하고 불신하고 싸웠던 나라치고 후손들에게 엄청난 불행을 남겨주지 않았던 역사는 없습니다.

분열은 망국으로 이어지므로 우리는 이 분열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정



이회창 총재가 정권을 잡는 일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정치의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치의 분열을 극복해야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 한나라당은 분열주의 세력

한나라당은 분열주의 세력입니다. '98년 연말부터 2000년까지 불과 1년 동안 17번씩 영남지역을 다니면서 지역감정을 부추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회창 총재는 냉전주의자입니다. 군사독재 시절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가 바로 이 냉전주의입니다. 그들이 남북 화해를 흔들고 남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족의 운명이 걸린 남북회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분열주의자가 다음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 나라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회창 총재가 정권을 잡는 일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정치의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남북관계도 과거처럼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질서도 전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분열주의자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 민주당은 국민통합을 이루어내고 있는가

민주당은 개혁적 국민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입니다. 또

이회창 총재가 정권을 잡는 일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정치의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 민주당은 국민통합정당입니다.(박수) **올영당**

국민통합을 당의 정강과 역사적 과제로 삼고 국민들에게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봅시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통합을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국민통합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국민통합을 성공시켜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전당대회를 할 것입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통합정부로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박수) **없습니다.(박수)**

더이상 동교동이 좌지우지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의 눈치나 살피고, 사사건건 보고하고 지시받아야 하며,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타율적 정당의 한계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박수)

더이상 호남당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정권교체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국민통합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해서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전 국민의 정당이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박수) **민은 이회창 후**



지역구도에 의해서 대선을 치르자고 한다는 것은 이제 정권 포기하고 야당 하면서 자기 기득권이니 지키자는 이기주의입니다

❖ 민주당 내의 지역주의적 경향을 경계한다

제가 지난번 4·13총선에서 낙선하고 중앙당으로 올라왔더니 중앙당 일각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번 대선도 호남·충청·강원이 연합해서 영남을 포위하는 구도를 짜서 승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승리만이 중요할 뿐이지 나라와 역사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정치·선거 기술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박수)

다음 대선이 동서간의 대결이 되었을 때 다음 정권을 설사 민주당이 잡았다 해도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국적 지지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문민의 정부도 실패했고 국민의 정부도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과연 성공시켜 낼 수 있겠습니까? 반쪽의, 절반의 정권으로는 절대로 나라의 역사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박수)

❖ 현실적으로 영남의 포위는 불가능

현실적으로 영남포위는 불가능합니다. 영남에 유권자의 28%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숫자놀음을 해봐도 영남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민주당의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선거 이전에 민주당의 후보가 되어 부산·경남·울산의 선거 중에서 단 하나라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후보 자신임을 물겠습니다

❖ 제2의 이인제는 없다

영남에서 제3의 후보가 나와서 영남의 표를 분산시켜 주면 영남을 포위하는 구도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요행을 바라면서 정치를 하면 안됩니다. 또 그런 요행이 다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지난번 민주당의 참패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영남에서 제2의 이인제는 없습니다.(박수)

또 다시 지역구도에 의해서 대선을 치르자고 한다는 것은 이제 정권 포기하고 야당이나 하자, 야당 하면서 자기 기득권이니 지키자는 이기주의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체념해 버리는 패배주의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기주의와 패배주의를 몰아내야 합니다.(박수)

❖ 영남이 무너지면 이회창은 무너진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푹푹 뭉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인구의 48%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은 이회창 후보의 텃밭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지역구도에 의해서 대선을 치르려고 한다는 것은 이제 정권 포기하고
이당 하면서 자기 기록권이니 지키자는 이기주의입니다

앞설 수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앞서고 있는 곳은 오로지 영남 뿐입니다. 지금 현재 이회창씨는 영남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이 영남의 표만 흔들어서 깨버리면 이회창 후보는 무너질 것입니다.(환호) 많이도 말고 딱 30%만 우리가 가져오면 이회창 후보는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 노무현의 영남 득표력

저는 14대 총선과 '95년 부산 시장선거와 지난 4·13총선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을 앞세우고 부산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OEM상표를 가지고도 3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 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이 제 표를 깎지 않으면 부산에서 50~60%는 받을 수 있습니다.(박수)

❖ 내가 후보가 되면 부산·울산·경남 중 한 곳에서 승리

영남에 유권자의 28%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의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만일 지자체 선거 이전에 민주당의 후보가



10월 13일 선거 이전에 민주당의 후보가 되어 부산·경남·울산의 선거 중에서 15승 15패 10승 단 하나라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후보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되어 부산·경남·울산의 선거 중에서 단 하나라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후보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심판 받겠습니다.(환호) 제 목표는 이 세 곳에서 모두 이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나가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만 이기면 대통령 선거도 승리할 것입니다.(연호)

❖ 나의 소원은 진정한 국민통합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염치 없이 대통령 후보 한 번 되겠다고 이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정권 한번 잡아보겠다고 우기는 것도 아닙니다. '90년 3당통합 때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호남 포위 구도였습니다. 호남 대 반호남의 구도로는 정치가 바로설 수가 없어서 따라가지 않았습니니다. (박수) '92년 14대 총선 때 제 지인들은 모두 "오지마라" "와 봤자 떨어진다" 고 했습니다. 야당을 통합했던 약속대로 김대중 대통령 사진 둘러메고 부산 동구에 가서 싸웠습니다. 제가 저도 좋았습니다. 허삼수 씨의 절반밖에 표를 못 얻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질 수 있습니까? 피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부산 시장선거에 내려갈 때 경기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제가 일등 했습니다. 조순 서울시장으로부터 그냥 서울부시장으로 러닝메이트 하지는 제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한 것은 경기도지사나 서울부시장 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 야당 하나

시대중 가장 큰 통합의 시대로 갈 때는 통합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 사람이
다수였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역사의 순리

심고 민주당을 전국당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국민과의 약속이었기 때
문에 저는 부산에 내려갔고 싸웠습니다.(박수)
하다하다 안되니까 '96년에는 3김 청산하자고 민주당에 남아서 종로에서 모
처럼 영남도 반대, 호남도 반대해 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옳든 그르든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호남 사람들 마음 속에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꼭 만들어야겠는데
무슨 3김 청산 같은 갈잡은 소리 하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제가 정치를 새
로 배웠습니다. 이치 따지지 말고 국민들의 가슴 속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주는
것이 정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97년 국민회의에 입당했습니
다.(박수)

저는 지난 13년간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호남을 적대한 적이 없습니다. 김대
중 대통령에게 반대한 적은 있지만 호남을 적대한 적이 없고 제 고향 영남을 버
린 적도 없습니다. 그 좋은 종로 국회의원 버리고 부산 내려갔습니다. 영남을
버리고는 이 나라 정치가 안된다, 영남과 호남이 서로 손잡을 때라야 이 나라 정
치가 바로선다는 믿음 아래 배지 떼고 갔습니다. 대통령 가까이 모시고 있는 분
들에게도 당신도 영남에 연고가 있지 않느냐, 내려가자, 싸우자, 영남을 끌어안
자 설득했지만 결국 저 혼자 갔습니다.(박수)

2002년 12월 19일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면,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박수치고 사람들이 함께 춤을 췄다

❖ 시대적 요구와 지도자

일제가 끝나면 그 나라 지도자는 항일 독립 세력이 돼야 합니다. 군사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 시대가 되면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역사의 주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
분열의 시대를 마감하고 통합의 시대로 갈 때는 통합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
사람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역사의 순리라고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
은 어떻습니까?(환호)

❖ 차기는 동서통합의 지도자가 되어야

이제 우리 민주당은 통합의 후보를 내세우고, 다음 선거는 동서 대결이 아니
라 동서 통합의 구도 속
에 치러서 이 나라 역사
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
'92년 12월 대통령 선
거 개표하는 날 영남에
서는 환호성이 일어났
지만 호남에서는 침묵
이 흘렀습니다. '97년



통합의 시대로 갈 때는 통합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 사람이
그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역사의 순리



대선 개표하는 날은 호남에서 밤새워 만세를 불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영남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잘 하는가 한번 보자, 거기도 한번 해먹어야지” 라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호남독식·인사편중’ 신문이 끊어대기 시작하고 민심이 흥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IMF 구조조정 때문에 할 수

없이 떠밀려 나간 사람들은 호남이 들어서 영남 작살냈다고 돌아섰습니다.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영남은 37년간 해먹지 않았느냐, 호남이 5년 해먹으면 얼마나 해먹겠냐, 한 번도 못 해먹은 국방장관 한 번 호남이 해먹겠다는데 그걸 인사편중이라고 너무 흔들지 말자. 봐주자.” 호소했지만 안 봐줬습니다.

이제 2002년 12월 19일 우리 민주당이 승리합니다.(박수)
그날 밤에는 광주 역전에서, 금남로에서도, 부산 광복동에서도, 대구 백화점 앞에서도 박수치고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춤출 것입니다. '92년, '97년 취임식 때 오라 하니깐 안 갈 수는 없고 갔다가 시큰둥하게 내려갔던 분들은 2003년 2월 대통령 취임식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만든 대통령을 축하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만납시다.(박수)
구경꾼이 아니라 동서 화합을 이루어내고 남북을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동북

2002년 12월 19일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면,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박수치고 사람들이 함께 춤출 것입니다

아시아의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 그날 모두 함께 만납시다.

❖ 정의가 승리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난 600년 동안 권력에 맞섰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패가망신했습니다. 그 역사 동안 우리 국민들이 배운 교훈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힘센 사람한테는 대항하지 말아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눈치보고 기어라’, ‘부귀영화를 누리려거든 힘 있는 자에게 손바닥을 비비고, 그럭저럭 밥먹고 살려면 불의·부정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대항하지 말아라’ 는 것이었습니다. ‘자손들 앞길까지 망치려면 옳다고 나서라’ 였습니다.

이 나라의 옳은 길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 패배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를 다시 쓰지 않고서 한국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권력에 당당하게 맞섰던 사람들도 그것이 옳은 것이면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당히 권력도 잡고 그들의 바른 뜻에 따라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역사를 '97년 김대중 대통령과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 이상 권력에 눈치보지 않고 말 없이 굴종하지 않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 모두 그때 힘을 뭉쳐서 승리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역사가 한 순간에 뒤집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뭉쳐서 이겨야 합니다.(박수)

민주당은 정통성 있는 지도자를 뽑아서 한국을 정통성 있는 나라로 만들고
다시 낯선 길을 떠날 때 10월 16일 원칙과 신뢰가 바로 선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이제 우리 정치가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경제를 가꾸기 위해서는 원칙을 존중하고 규범을 준수하여 정당당당하게 페어플레이해서 승리하는 투명한 원칙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원칙의 시대로 가려면 정치지도자들이 원칙을 지키고 규범을 존중하며 신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가 자기 말에 책임지는 정도로 나갈 때 학계와 경제계, 문화계도 원칙이 바로설 수 있습니다.

❖ 민주당다운 정통성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민주당은 군사독재 시절 반독재 투쟁을 해온 정당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권력에 맞섰던 정당입니다. 줄기차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마침내 승리한 정당입니다. 오로지 한 길을 걸어온 정당입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쓰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책을 한 번 보십시오. 그 책을 보면 정치를 하고 있거나 정치를 하려는 사람에게 “한 길을 가라. 나는 지난 30년 정치를 하면서 한번도 계보를 바꾼 일도 없고 정당을 바꾼 적이 없다. 오로지 원칙을 가지고 정도를 갔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전통이고 역사입니다. 민주당은 정통성 있는 지도자를 뽑아서 한국을 정통성 있는 나라로 만들고 원칙과 신뢰가 바로 선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박수)



한나라당이 가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는 민주 세력, 개혁세력, 통합세력이 하나로 되는 새로운 정당을 꿈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 한국정치의 판을 새로 짜기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

이제 눈을 더욱 크게 떠 봅시다. 우리 민주당만이 아니라 한국정치의 판을 새로 짜서 개혁해야 합니다. 지역구도를 털어버리고 정책에 따라 정당을 꾸리는 정책구도로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를 재편성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탈 호남, 당·정 분리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탈(脫) 호남 해야 하고 '일인지배체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당권을 분리해서 대통령이 국회를 지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소신에 따라서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黨)과 정(政)이 분리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가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는 민주 세력, 개혁세력, 통합세력이 하나로 되는 새로운 정당을 꿈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 책임총리제

그리고 총리는 더 큰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내각제를 지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각제 개헌은 어렵지만 우리 헌법 속에 내각제적 구성요소를 충분히 살려 나가면 정부의 권한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일이 너무 많아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힘이 듭니다.

❖ 상향식 민주주의 - 공천권을 당원에게

또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공천권을 특정 정파가 마음대로 쥐고 있으니 국회의원이든 지구당위원장이든 그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비대한 권력을 가진 측근이 생겨나게 되어서, 지금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주어 민주적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상향식 민주주의를 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 한국정치에 지각변동 - 이념과 정책 중심의 정계개편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한국의 정치·경제는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가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는 명분있는 기회만 생기면

70대 문턱을 넘어가는 60대의 할아버지와 50대 중반의 젊고 활력있는
민주당 후보가 대결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민주 세력, 개혁세력, 통합세력이 하나로 되는 새로운 정당을 꿈꾸는 분들도 있습니다.(박수)

민주당이 권위적 정당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한나라당은 권위적 당이 되고 민주당은 민주적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가 민주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개혁적 통합의 지도자일 때, 그들은 가까이 민주당이 내놓은 분과 정치를 함께 하려고 할 것입니다.(박수)

민주당이 영남에서도 지지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 탄생했을 때 영남에는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민심이 움직이고 정치인이 움직이면 정치는 달라지고 정계는 개편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2개월이면 2004년 총선이 다시 다가옵니다.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그 정부를 열



무주단합대회에 참석한 영화배우 명계남과 문성근

거나 흔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개혁을 완수하겠습니까? 한나라당은 이 점을 선전할 것입니다.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민주개혁 통합세력들이 뭉쳐서 정계개편을 제안하고 정치판을 새롭게 짜야 합니다. 그 개편의 과정에서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고 여대의 국회로 새로운 정권이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 정부의 개혁과 과업도 완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민주당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새롭게 창당을 하는 이품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 세력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환호)

❖ 민주당이 승리하는 또 다른 이유

우리는 승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기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국 정당이 되고 정계개편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기는 이유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의 특권층 후보와 50대의 보통시민 후보의 대결

세대교체의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70대 문턱을 넘어가는 60대의 할아버지와 50대 중반의 젊고 활력있는 민주당 후보가 대결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환호)



때로는 경호원 없(대통령선거의 과정은 신문만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전 과정에서 언론개혁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날 때부터 귀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랄 때는 계속 우등생이었고 절 한번 안 해보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던 이회창 총재와, 산전수전 다 겪고 떨어져서 뒹굴기도 하면서 오뎅이처럼 살아온 서민 대표가 맞붙었을 때 이 나라 중산층과 서민들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박수)

전국적 지지를 받는 후보와 영남에서만 지지받는 후보

친구 같은 지도자, 매력있는 지도자

전국적 지지를 받는 후보와 오로지 영남 한 군데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맞설 때 결과는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이가 무게가 있습니까? 독일 총리 슈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

❖ 언론개혁을 위해 싸워야

소수 특정언론이 민주당을 이렇게 방해하며 두들기는데 앞으로 태어날 민주당을 얼마나 흔들 것이나, 이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특권을 누리는 소수언론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일어나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의 과정은 신문만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 과정에서 언론개혁을 위해서 전 싸울 것입니다.(박수)

이제 권력이 언론을 개혁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정권은 국민의 지지 위에 탄생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나가는 전 기간 동안 우리 당의 후보를 공격

하는 언론과 우리 당원들이 맞서 싸운다면 언론은 민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환호)

그리고 그 민심은 언론개혁의 제도적 장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2003년 언론개혁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싸워 나갑시다.(박수)

❖ 이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 한국의 21세기는 젊고 활력 있는 지도자가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분쟁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젊고 활력있는 지도자

분쟁과 고통과 재난의 현장에 항상 뛰어나가서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박력 있는 지도자를 여러분은 갖게 될 것입니다.(박수)



때로는 경호원 없이 동대구 시장에 부산시장에 불쑥 나타나는 지도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소주 한 잔을 나누게 될지도 모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지도자

저 높디 높은 청와대 담장 안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대통령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탄생할 겁니다. 때로는 경호원 없이 동대구 시장에 부산시장에 불쑥 나타나는 지도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소주 한 잔을 나누게 될지도 모릅니다.

친구 같은 지도자, 매력있는 지도자

지금 세계 지도자들은 무게있는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클린턴이나 토니 블레어가 무게가 있습니까? 독일 총리 슈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친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나라의 중산층과 서민들은 친구 같은 지도자를 매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희망으로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21세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의리있는 지도자

저는 의리있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를 후보로 만들어주었던 노태우 대통령을 등떠밀어 내몰았습니다. 마침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그를 후보로 만들어준 김영삼 대통령의 화형식을

물고코지 커니키 썬볼 이경사선부 이경사 두리동 이경 불호중 근로회
.디니롬모 코지를 이쿠니 올진 함 주소 이분도이 면자이 .디니알것 불 이보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한테 표가 오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배신의 의리없는 모습을 가지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어렵더라도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렵다고, 민심에 도움이 된다고 우리 당에서도 최근 너도 나도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장 대통령이 두렵지 않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안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품위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는 어려울 때도 신의를 지킬 줄 아는 똑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런 똑심있고 의리있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박수)

이코지 크있때이 .이코지 응답 두진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 한국의 21세기는 젊고 활력 있는 지도자가

❖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고 편안한 제도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문화국가로 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우리는 그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한국이 새로운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결정을 이번 대통령선거가 하게 될 것입니다.

❖ **대의원 동지들의 손에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

여러분 들어 보셨죠? “노무현 당신은, 후보만 되면 대통령 되는 건 문제없을 것 같은데 경선이 어려울 것 같다”는 소리 말입니다. “본선은 쉬운데 예선이 어

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본선 통과할 사람 놔두고 본선 가서 깨질 사람, 8강에도 못 들어갈 사람을 대표선수로 내세울 것 같습니까? 다음 대통령선거가 바로 예선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예선을 결정하는 여러분의 손에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권이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함께합시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환호)